

인도의 타이어산업 현황(I)

업 무 부

1. 略 史

인도의 타이어산업은 국내 산업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2년도 매출액은 440억루피(14억 달러)이며, 투자액은 200억루피(6억 4,000만 달러)에 달한다. 직접 종사원도 10만명이나 된다. '92/'93 회계년도중 전체 타이어 생산량은 1,995만개로서 수출규모는 48억 3,000만루피이다(인도의 회계년도는 3월 31일에 끝난다).

타이어산업 역사 75년은 대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920~1936 : 인도의 타이어회사는 Dunlop, Firestone, Goodyear, India Tyre and Rubber Company의 4개사로서 이들 회사들은 타이어를 수입하여 시장에 파는 역할을 하였다.
- 1936~1959 : 노동력이 풍부하고 국내에서도 천연고무 재배가 가능하므로 타이어 생산을 촉진하게 되었다. 1936년 Dunlop이 West Bengal의 Sahaganj에 인도 최초의 타이어 공장을 지었다. 그 6년후에 Firestone이 Bombay에 공장을 지어서 1960년대까지 이들 2개 공장이 인도의 타이어

수요를 채웠다.

- 1960~1973 : 몇개의 인도 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타이어공장을 지었는데, 1973년까지 MRF, Ceat, Inchek와 Premier가 가동되었다.
- 1974~현재까지 : 생산기반은 확대되어 대기업으로는 Singhanias, Modi, Ranaq가, 중소기업으로는 Srichakra, Falcon, Metro가 타이어시장에 참여하였다. 1974년에 인도에는 7개 타이어 회사와 9개의 공장뿐이었으나, 1985년에는 16개 회사가 24개의 공장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타이어산업은 더욱 성장하여 수출이 중요한 몫을 하게끔 되었다. 1982년도에 147억 5,000만루피였던 매출액은 1990년도에는 340억루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중 수출은 1억루피에서 18억 2,500만루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산업구조

오늘날 인도에는 24개의 타이어회사가 있는데 11개의 대기업이 다양한 규격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7개의 중규모 기

업, 6개의 소규모 회사가 있다.

Tyre Corporation과 Vikrant Tyres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업체이다. Goodyear는 유일한 외국기업이다(이 회사는 미국의 Goodyear and Rubber사가 6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외국 투자자들은 회사를 팔거나 지분을 낮추었다. Mansfield(미국)는 현지 주주들에게 그들의 공장을 팔았고, Firestone은 Modi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M R Chabbria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Dunlop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89년 인도 정부는 타이어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여 타이어공장을 세우는 데 정부로부터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따라서 Birla, S Kumar, Srichakra가 신규참여하였지만 인도의 타이어산업은 구조적으로 6개의 재벌그룹회사, 즉 Mammen(MRF), R P Goenka(Ceat), Modi(Mod Rubber and Bombay Tyres), M R Chabbria(Dunlop and Falcon), Singhanias(J K Industries), Rau-naq(Apollo)가 시장의 3/4 이상을 과점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독점거래행위로 MRTPC(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타이어산업의 기업집중현상의 특징은 수평적 기업결합이라는 점이다. 1981년에 Modi Rubber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Firestone을 인수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R P Goenka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Ceat는 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3년 Goodyear와 합작투자를 제의한바 있다. Chabbria는 1988년 Dunlop을 인수하고 이어서 Falcon Tyres도 인수하였다. 이의 반동으로 아직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Vikrant Tyres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있

다. 1993년 중반 Apollo는 S Kumar와 이륜차 타이어 판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기업의 수직적 통합사례도 있다. 타이어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생산에 관심을 갖고 있어 나일론 타이어 코드 제조업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Goenka그룹은 타이어 생산 주자재인 카본블랙, 타이어 코드, 고무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Srichakra Tyre사를 갖고 있는 T V Sundaram그룹은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을 제조하고 있으며, 재생 타이어도 생산하고 있다. 타이어산업에 가장 늦게 진출한 Birla그룹은 나일론 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그밖의 타이어 원자재 생산업체로는 Century Enka, J K Synthetics, Shri Ram Synthetics와 Indian Rayon(타이어 코드), Philips Carbon, Indian Rayon and United Carbon(카본블랙)이 있고, Indian Petrochemicals Corporation은 폴리부타디엔 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SBR은 Synthetics and Chemical이 독점생산하고 있는데, 수입관세 85%의 보호아래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3. 타이어제조업체

(1) MRF

MRF는 1960년에 설립되었는데, 원래는 미국의 Mansfield Tire & Rubber Company가 세웠다. 그러나, 1981년에 Mansfield가 이 회사를 內國人에게 팔게 되어 결국 지금은 Mammen Mapillai家에서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5개의 공장(Tiruvottiyur, Arkonam, Kotayam, Goa)을 갖고 있다.

생산제품도 다양하여 고속주행 승용차용 타이어뿐만 아니라 ADV(우마차용) 타이

어까지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Michelin과 함께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MRF는 10%의 주식을 Michelin에게 양도한바 있다.

MRF는 인도 최대의 타이어제조업체일뿐만 아니라 European Rubber Journal지의 '93/'94 세계 타이어보고서에는 세계 14위의 타이어업체로 나와 있다. 1993년도 동사의 매출액은 100억루피(3억 1,850만달러)를 상회하고, '91/'92년의 稅前純利益이 5억 9,400만루피(1,880만달러)이다.

동사는 타이어 이외에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Pirelli(이탈리아)와는 콘베어벨트 생산을, Vapocure(오스트레일리아)와는 고무코팅제 생산을, Funskool과는 완구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2) Ceat

Ceat는 1958년 이탈리아의 Ceat가 설립하여 지금은 R P Goenka 그룹과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다. Ceat의 생산제품은 타이어 튜브, 유리섬유, 나일론 타이어 코드이다. Bombay, Nasik, Waluj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들 공장에서는 스쿠터용, 모터사이클용, 승용차용, 트럭·버스용, 소형트럭용, 트랙터용, 로더용 등 각종 타이어·튜브를 생산하고 있다. Waluj는 이륜차용 타이어 생산시설을 새로 가동시켰다.

동사는 일본의 Yokohama Rubber Company와 래디알 타이어 생산기술 계약을 맺은바 있다.

이 회사의 '92/'93년도 매출액은 74억루피(2억 3,570만달러)이며, 세전순이익은 9억 9,280만루피(3,160만달러)이다. ERJ(European Rubber Journal)에 의하면 이 회사는 세계 18위의 타이어 생산업체이다.

이 회사는 타이어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유리섬유와 전자사업부문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넘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의 타이어사업부문은 Goodyear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3) Dunlop

Dunlop은 외국인인 M R Chabbria가 소유하고 있다. 그는 원래 중동지역 Sony 제품 판매상이었는데, 영국의 Dunlop 주식지분을 Sumitomo로부터 인수하여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인도의 Dunlop사는 항공기를 포함한 각종 타이어뿐만 아니라 팬벨트, 고무 호스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은 West Bengal주의 Sahaganj와 Tamilnadu의 Ambattur에 있다.

이 회사는 일본 Sumitomo Rubber와 기술계약을 맺고 있으며, Dunlop Aerospace(영국)와는 항공기용 타이어 기술계약을 맺고 있다.

'92/'93년도의 매출액은 62억루피(1,975만달러)였으나, 이익은 1억 7,000만루피(540만달러)에 그쳤다. 동사는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ERJ에 의하면 세계 랭킹은 27위이다.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사는 설비현대화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Sahaganj공장은 항공기용, 트럭·버스용, 트랙터용 타이어 등 주로 대형타이어를 생산하는 반면에 Ambattur공장은 래디알 타이어를 포함한 승용차용 타이어만을 생산하고 있다. Dunlop은 스쿠터용 타이어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며, 이 제품들은 Falcon이 생산하여 Dunlop은 판매만 할 것이다.

(4) Goodyear

Goodyear는 1942년 개인기업으로 출발

하여 1962년에 기업공개를 하였다. 미국의 Goodyear사가 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Haryana의 Balagarh에 공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트랙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OTR타이어부문의 시장점유율은 가장 높다.

이 회사의 '92/'93년도의 매출액은 31억 루피(9,880만달러)이다. 최근까지 이 회사의 영업활동은 외국인 지배회사에 대한 외환규제법(FERA, 1973)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동사는 社勢를 확장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에게 시장점유율을 점점 잠식당했다. 그러나 1991년 FERA의 외환관리가 자유화되고 새로운 사업환경의 변화를 이용하여 Goodyear는 Ceat와 래디알 타이어 합작생산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5) Apollo

이 회사는 Kerala 주정부의 일부 자본참여아래 Raunaq가 창설하였다. 공장은 Kerala주의 Perambra와 Gujarat주의 Limda에 있다. Gujarat공장은 1991년 9월 62만 5,000개의 생산능력으로 출범하였다. 이 회사의 생산제품은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타이어이다.

미국의 General Tire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동사의 '92/'93년도의 매출액은 4억 400만루피(1,290만달러)로서 세계 랭킹은 25위이다.

Apollo의 강점은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교체용 시장부문이다. 회사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간에 알력이 있지만 스쿠터용 및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판매를 위하여 S Kumar와 제휴하기로 했다.

(6) J K Industries

이 회사는 나일론 타이어코드 주요 생산업체인 J K Synthetics가 1977년에 설립하였다. Rajasthan의 Jaykaygram과 Madhya Pradesh의 Banmore에 각각 1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 인도에 최초로 래디알 타이어를 발매한 이 회사는 아직도 모든 차종의 래디알 타이어를 생산하는 인도의 유일한 회사이다.

'92/'93년도의 매출액은 32억루피(1억 190만달러)이며, 세전이익은 5억 140만루피(1,600만달러)이다. 이 회사도 미국의 General Tire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다.

(7) Modi Rubber

197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Uttar Pradesh주의 Modipuram 공장에서 승용차용 타이어·튜브를 생산하고 있다. '92년도의 매출액은 2억 1,290만달러로서 세계 20위에 올라있다. 이 회사는 독일의 Continental Gummiwerke사와 기술협조를 하고 있다.

(8) Vikrant Tyres

인도 남부지역 Mysore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 주식의 상당량은 Karnataka주정부가 갖고 있고, Dunlop도 조금 갖고 있다. 이 회사의 '92/'93년도 매출액은 22억루피(7,000만달러)이며, 세전이익은 1억 8,200만루피에 달하였다. 세계 랭킹은 46위이다. 1985년까지 적자여서 자본을 전부 잠식하기도 하였다.

동사는 이륜차용 타이어 생산에서 탈피하여 트럭·버스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버스용 스틸 래디알 타이어부문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바 있

다. 동사의 대주주는 5.34%의 지분을 갖고 있는 M R Chabberia인데 그는 Dunlop이 취득한 50만주의 주주명부 등재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9) Srichakra Tyres

T V Sundaram그룹이 설립한 이 회사는 이륜차용 타이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타이어부문까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Tamilnadu의 Madurai에 공장이 있는데, '92/'93년도 매출액은 3억 2,900만루피(1,050만달러)이며, 순이익은 1,200만루피이다. 외국기업과 합작하지 않은 몇개 안되는 회사중의 하나이다.

(10) Birla Tyres

B K Birla그룹의 주력기업인 Kesoram Industries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1991년말 Orissa의 Balasore에 연간생산능력 10만개의 공장을 세웠다. 이 회사는 트럭·버스용, 승용차용, 트랙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Pirelli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다.

1993년 3월에 끝나는 회계년도중 매출액은 3억 9,000만루피(1,240만달러)로서 아직은 적자상태이다. 동사는 노사분규로 두 번이나 공장문을 닫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생산·판매가 안정되었다.

(11) Bombay Tyres

이 회사는 미국의 Firestone이 생산한 타이어와 고무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1930년에 설립되었다. 1981년 Modis가 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공장은 Maharashtra의 Sewri에 1개가 있다.

Continental Gummiwerke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으며, '92년도 매출액은 8,000만달러로서 세계 49위에 올라 있다. 타이어시장의 7%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회사는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12) Falcon Tyres

M R Chabbria에서 인수한 이 회사는 2륜 및 3륜차용 타이어부문에서 인도 2위의 제조회사이다. 제품의 85%를 Bajaj Auto 등에 신차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는 Dunlop(다른 Chabbria 그룹 계열사)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튜브용 부틸고무도 생산하는데 최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다.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91/'92년도 매출액은 3억 5,000만루피였다.

4. 타이어 생산현황

인도는 우마차용 타이어에서부터 항공기용 타이어까지 각종 타이어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24개 제조업체의 연간 타이어 생산 능력은 2,600만개이다. 항공기용 타이어는 Dunlop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88/'89년도의 타이어 생산량은 1,457만개로서 26%의 최고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듬해인 '89/'90년도에는 1,744만개를 생산하여 20%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4%가 증가한 1,807만개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91/'92년도에는 1%가 감소한 1,789만개를 생산하였는데 승용차용, 지프용, 소형트럭용,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생산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트럭·버스용, 모페드용, 산업차량용 타이어 생산량은 조금 증가하였다.

〈표 1〉 인도의 타이어 생산현황(1988~1993)
(단위 : 100만개)

연도 종류	'88/'89	'89/'90	'90/'91	'91/'92	'92/'93
트럭·버스용	4.92	5.05	5.26	5.49	6.27
승용차용	1.97	2.39	2.47	2.10	2.30
지프용	0.65	0.66	0.59	0.51	0.60
소형트럭용	0.68	0.78	0.87	0.75	0.90
프랙터용	0.99	1.53	1.37	1.41	1.63
우마차용	0.22	0.55	0.47	0.60	0.55
스쿠터용	3.36	4.19	4.47	4.48	4.59
모터사이클용	1.57	2.04	1.96	1.78	1.91
모페드용	0.17	0.30	0.56	0.70	1.12
기타	4	6	6	7	8
계	14.57	17.44	18.08	17.89	19.95

자료 : Automotive Tyre Manufacturers Association (ATMA)

'92/'93년도 생산량은 12%가 증가하여 1,995만개에 달했다. 최고 신장률을 보인 것은 산업용 타이어와 모페드용 타이어로서 각각 68%와 60%를 기록하였다. 트럭·버스용은 14%, 승용차용은 10%, 지프용은 19%, 스쿠터용은 2%, 모터사이클용은 7%, 소형트럭용은 21%가 신장하였는데, 업체별·용도별 생산현황은 〈표 2〉와 같다.

(1) 래디알과 바이어스 타이어

인도의 타이어 생산량은 아직도 바이어스 타이어가 절대적인 95%를 차지하고 있다. 래디알 타이어는 1978년 J K Industries가 스틸 벨티드 래디알 타이어를 생산·판매한

〈표 2〉 업체별·용도별 타이어 생산현황('92/'93)

(단위 : 개)

	Apollo	Birla	BTIL	Ceat	Dunlop	Falcon	Goodyear	JKI	MRF	Modi	Premier	Vikrant	TCIL	Srichakra	Metro	Bal Krishna	Total
트럭·버스용	785,633	375,383	217,650	803,797	521,036	-	303,482	942,524	795,058	803,525	154,080	510,526	54,572	1,687	-	-	626,895.3
승용차용	101,212	54,488	214,072	580,403	281,897	-	167,364	245,846	429,974	188,815	15,001	8,114	10,151	1,541	2	4,942	2,303,823
지프용	7,282	216	44,948	152,429	33,283	-	9,304	98,719	159,794	56,566	2,418	14,704	13,360	-	464	9,514	603,001
소형트럭용	39,359	10,787	104,082	135,913	79,915	-	65,677	146,935	164,175	93,378	2,851	32,550	1,031	8,725	-	16,622	902,000
트랙터용(전륜)	55,422	7,484	62,239	88,978	55,242	-	79,500	68,386	201,861	60,905	9,835	23,754	-	-	18,884	19,752	752,245
트랙터용(후륜)	49,559	6,357	32,930	69,161	49,585	-	82,669	38,332	125,638	44,431	9,466	12,309	-	-	1,019	-	521,456
트레일러용	49,259	17,641	18,713	72,704	23,005	-	21,559	32,522	70,876	16,449	7,211	9,816	-	-	1,740	10,354	351,849
우마차용	8,830	9,592	70,360	59,731	52,047	32,908	-	-	93,363	90,681	5,726	17,401	7,659	-	57,915	36,987	549,972
스쿠터용(2륜)	-	-	168,221	1,033,370	23,328	662,227	-	-	908,817	302,081	8,442	-	-	479,076	44,885	327,384	3,957,832
스쿠터용(3륜)	-	-	18,302	176,031	2	176,575	-	-	179,659	20,007	1,169	-	-	10,521	4,325	45,490	6,322,081
자전거용	-	-	53,495	448,781	185,436	231,849	-	-	640,402	100,478	-	-	-	117,559	9,553	119,550	1,907,103
모페드용	-	-	-	-	-	305,951	-	-	-	-	-	-	-	671,947	19,390	124,867	1,122,155
산업차량용	-	-	-	11,843	-	-	-	-	-	-	-	-	-	20,454	-	-	32,297
건설차량용	-	-	1,390	21,650	6,712	-	6,659	-	2,279	-	-	-	-	-	-	-	38,690
항공기용	-	-	-	-	8,358	-	-	-	-	-	-	-	-	-	-	-	8,358
계	1,096,559	481,943	1,006,402	3,654,792	1,319,848	1,409,510	736,214	1,580,026	3,771,896	1,768,849	216,199	629,174	86,773	1,311,510	160,175	715,462	19,951,952

자료 : ATMA

것이 효시이다. 그후 많은 제조업체들이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용 래디알 타이어 생산에 참여하였지만 래디알화는 지지부진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설

비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도로여건이 좋지 않으며, 자동차의 현가장치도 래디알 타이어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트럭·버스는 過積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스틸

코드는 수입하여야 하는데 수입관세가 85%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래디알화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자동차타이어 협회는 '94/'95년도에 승용차용 타이어의 40%,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25%,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10%가 래디알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재생타이어

① 개요

인도에서 타이어 재생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고무사용량의 7% 이상이 타이어를 재생하는 데 쓰이고 있다. 스쿠터용 타이어를 포함하여 건설차량용 타이어 등 모든 타이어가 재생되고 있는데 재생타이어공장만 3,000개를 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hot-curing 방법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5년도부터 저온가황방법이 도입되어 현재는 20% 정도되고 있다.

② Elgi Tyre and Tread

이 회사는 미국의 Oliver Rubber Company의 기술제휴로 Elgi Equipment가 설립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事前加黃한 재생타이어용 트레드시장부문에서 상당히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Andhra Pradesh와 Pondicherry에 각각 1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생산능력은 연간 18,000톤이나 된다.

동사는 Maruti, Premier 118NE, Centessa, Tata Sierra와 같은 신세대 승용차용 타이어 재생을 시작하였으며, 타이어 재생 기술, 원료배합, 기계조작기술을 전국 350개 체인에 보급하였다.

③ Indag Rubber

이 회사는 미국 Bandag Inc의 기술·자본 합작으로 Khemka그룹이 설립하여 트

레드시장에서 2인자의 위치에 올라있다. 1993년 중반 Bombay는 해외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로부터 회사의 주식지분을 66%까지 올릴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④ MRF

MRF는 이탈리아의 Marangoni사와 합작하였는데, Elgi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다.

그밖의 재생타이어 회사로서는 Sundaram Industries(TVS그룹계열사), Speedways Rubber, Midas Precured 등이 있다.

(표 3) 재생타이어업체의 외국기업과의 합작현황

외국 회사	국내 회사
Oliver Rubber Company(미국)	Elgi Tyre & Tread
Bandag Incorp.(미국)	Indag Rubber
Marangoni(이탈리아)	MRF
Vulcan(캐나다)	Sundaram Industries

(3) 타이어업계의 합작현황

인도 최초의 2개 타이어공장은 Dunlop과 Firestone의 자회사에 의하여 준공되었는데, 대기업체는 거의 모두 외국기업체와 자본·기술제휴를 하고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은 최근 타이어산업에 참여한 Birla Tyres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회사의 공장은 이탈리아 Pirelli의 기술협조로 준공되었다.

사실 Bridgestone을 제외한 세계 유수의 타이어 메이커들이 주식취득이나 기술제휴의 방식으로 인도 타이어산업에 진출해 있다.

Michelin은 처음에 S Kumar와 이륜차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술협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사가 신규로 참여한 데다 규모도 작아서 Michelin은 이를 백지로 돌리고 인도 최대의 타이어회사인 MRF

와 계약을 맺기로 하였다. MRF는 Michelin에게 자본금 4,240만루피의 10%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 이를 더 늘리고자 하는 Michelin과의 협상이 해가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Michelin과 MRF간의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 합작추진은 무산된 바 있다.

Goodyear는 그의 자회사인 Goodyear India를 통하여 인도시장에 가장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FERA)의 계약을 받아 사업확장도 되지 않고 신규 참여 회사들에게 시장점유율도 계속 잠식당하였다. FERA의 규제가 해제되자 Goodyear는 사업전략을 전환하는 것 같다. 1993년 9월 동사는 RPG 그룹사인 Ceat와의 합작투자를 발표하고 래디알 타이어와 건설차량용 타이어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 합작회사의 이름은 South Asia Tyres Limited라고 하는데, Goodyear의 현재 자회사의 생산라인을 보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합작규모는 45억루피(150만달러)로서 공장은 Maharashtra의 Aurangabad에 있는데, 소요기간은 2년, 완공시의 생산능력은 25인치 규격의 타이어를 포함한 그 이상의 대형타이어를 연간 50만개 정도 생산하게 될 것이다.

Continental Gummiwerke는 Modi Rubber, Apollo, J K Industries와 대규모의 스틸 래디알 타이어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지분은 Continental이 51%, 인도의 3개사가 각각 9.66%씩, 나머지 20%는 공개될 것이다.

Sumitomo Rubber Industries는 Dunlop

에게 래디알 타이어 생산기술을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Dunlop이 사업확장종합계획을 주장하여 합작내용은 보다 광범위한 부문이 될 것이다.

Yokohama Rubber Company는 원래 이탈리아의 Ceat와 제휴했던 인도의 Ceat와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인도의 타이어산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Pirelli는 B K Birla 그룹과 Orissa에 타이어공장을 짓기로 하였는데, 이 공장은 1991년에 생산을 시작하였다.

American Trac Tyres사는 100% 단독 투자로 연간 15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하였는데, 1993년 11월에 해외투자촉진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Tamilnadu에 위치한 동공장은 트럭·버스용,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래디알 타이어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표 4) 타이어업체의 합작현황

협력업체	인도 타이어업체	협력형태
Michelin(프랑스)	MRE	10% 출자
Pirelli(이탈리아)	Birla Tyre	기술제휴
Yokohama Rubber Co.(일본)	Ceat	기술제휴
Sumitomo(일본)	Dunlop	기술제휴
unlop Aerospace(영국)	Dunlop	기술제휴(항공기용만)
Goodyear Tire & Rubber(미국)	Goodyear Ind.	60% 출자
General Tire(미국)	Apollo	기술제휴
General Tire(미국)	J K Industries	기술제휴
Continental Gummiwerke(독일)	Bombay Tyres	기술제휴
Avon Technical Services(영국)	Vikrant Tyres	기술제휴

(다음호에 계속)

자료: EIU Rubber Trends 4th quarter 1993

번역: 金 民/協會 業務部長

우리도로에는 우리나라 타이어